

## 118대 의회, 인종 다양성 역대 '최고'



▲ 제118대 미국 상·하원의 인종 다양성이 역대 최고이다. 제118대 하원 본 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출범한 제118대 미국 의회가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역대 최고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118대 미국 상·하원의 인종 및 성별을 분석한 결과, 1명의 하원 당선 사망자(도널드 맥이친·민주)를 제외한 534명(상원 100명, 하원 434명)의 의원 가운데 유색 인종이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1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흑인 의원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히스패닉(54명), 아시아계(18명),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5명) 순이었다.

118대 의회 유색 인종의 80%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공화당은 20%에 불과했다.

퓨리서치는 "전반적으로 의회 내 인종 다양성이 개선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의 비율이 과다 대표되고 있다."며 "이들은 전체 미국 인구에서 59%를 차지하지만, 의회 비중은 7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인종별로는 전체 미국 인구에서 각각 13%와 1%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과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의 경우 의회에서 그 비중을 유지한 반면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의원수는 실제 인구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시아계의 경우 전체 미국 인구에서 6%를 차지 하지만 의회 내에선 4%에 불과했고, 전체 인구의 19%에 달하는 히스패닉 의원도 11%에 머물렀다.

한편 534명의 의원 가운데 여성 의원은 모두 153명으로 전체의 28%에 달해, 역대 최다로 집계 됐다.

### 낱말퍼즐 정답

1	번	2	형	광	3	등		
4	성	호	사	설	5	사	6	골
리					7	지	론	다
학	9	우		공	10	허	공	
11	범	벽		12	봉	13	증	14
지			15	한	우		강	
16	대	17	기		18	유	일	19
		20	고	무	신	게		이

##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연장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추가로 연장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는 전날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처음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발령한 뒤 90일 단위로 연장해왔다.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비상사태 연장이 종료될 경



▲ 뉴욕의 한 코로나19 무료 검사소에서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우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진료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60일 전에 병원 등에 사전 고지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추가로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기로 할 경우 다음 달에는 관련 방침이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단 결정은 자료와 과학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언제쯤 종료될 것이란 관측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 하루 확진자는 6만7천여명이며 약 390명이 코로나 관련 사망자로 집계됐다.

## 미국 청소년 15% “열 살 전에 포르노 접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성인 콘텐츠의 확산에 따라 10세 이전에 포르노에 노출되는 미국 청소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커먼센스 미디어가 13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1천35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온라인에서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15%는 10세 이전에 처음으로 포르노를 접했다고 밝혔다. 11~13세 때 포르노를 접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39%로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14~15세라고 응답한 비율은 17%였고, 16~17세라고 응답한 비율은 3%였다.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포르노를 접한 평



▲ 미국 청소년의 15%는 10세 이전에 포르노를 경험한다. 사진=shutterstock

균연령은 12세였다.

온라인에서 포르노를 접한 청소년의 58%는 일부러 검색한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던 도중 우연히 성인 콘텐츠를 보게 됐다고 응답했다. 의도적으로 포르노를 찾아본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선 59%가 1주일에 한 번 이상의 빈도로 포르노를 본다고 답했다.

특히 학교에서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41%나 됐다. 이 중 44%는 스마트폰 등 개인 소유의 기기와 아닌 교실 컴퓨터 등 학교에서 자급한 기기로 포르노를 봤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포르노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45%는 '포르노가 성관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응답했다.

### 1455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7에 있습니다)

5	3		4					9
4			7		3		8	
		2			9			5
7					8			6
3			2					7
6	1						5	
9	6		4		1	3		
	7		9	2				
8		5		6			7	